

전남 농가소득 전국 최저수준

통계청 2005년 조사…年 평균 2,705만원 그쳐

자산대비 부채규모도 가장 높아 '빈곤 악순환'

전남지역 농가의 지난해 소득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가 자산이 가장 적은 반면, 자산 대비 부채 규모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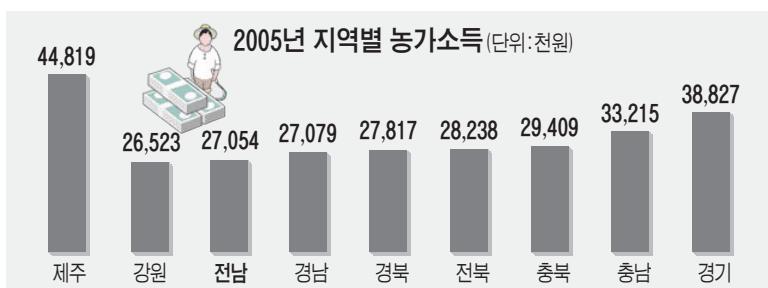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의 연간 평균 소득은 2천705만 4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3천50만 3천원의 88.7% 수준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제주도(4천481만 9천원)의 60%선에 머물렀다.

이같은 농가소득 통계는 경기·경남·경북·충남·충북·전북·제주·강원도 등 조사대상에 포함된 9개 지역 가운데 강원도(2천652만 3천 원)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농가 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였으며, 경기 3천882만 7천원, 충남 3천 321만 5천원이 뒤를 이었다.

자산규모는 전남이 가구당 평균 1억 3천325만 8천원으로 조사 대상지역 가운데 가장 적었다. 자산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전남의 3배가 넘는 5억 8천 309만 1천원을 기록했으며 제주가 4억 1천 490만 3천원, 충남이 3억 1천 918만 6천원 순이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농가의 지난해 가구당 평균 부채는 2천 690만 1천원으로 전국 9개 도 지역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자산 대비 부채비율로 계산할 경우 전체 자산 가운데 부채가 13.9%에 이르러 경남(14.



9%)에 이어 두번째로 지역농가의 부채 부담이 심각했다.

전남지역 농가는 이처럼 빈곤의 높은 허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체 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즉 농업의 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농업소득은 1천 171만 4천원으로, 농업의 존도는 43.2%였다. 이 같은 수치는 경북의 4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지역 농가에서 전국 쌀 생산량의 20%, 보리의 50%를 생산하는 등 지역 농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임영주 전남도 농정국장은 "전남은 산업화가 뒤져 있어 농가 구성원들이 공장에 취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설원이나 축산 등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에 종사하는 농가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앞으로 투자유치와 관공산업 활성화, 고소득 작물 확대 보급 등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높이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왕의 남자' 미서 화제

뉴욕타임스 인터넷판 소개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1일 일본계 오니시 노리미쓰 특파원의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영화 최대 관객동원 기록을 세운 '왕의 남자'를 소개했다.

신문은 '왕의 남자'의 줄거리와 함께 1천 2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아 한국 사람 4명 중 1명이 영화를 본 샘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신문에서는 '왕의 남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동성애 문제를 주로 다뤘다. '왕의 남자'를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라고 소개하고 이태원과 종로의 게이바 등

한국의 동성애와 관련한 내용도 실었다.

그러나 신문은 이준의 감독이 인터뷰에서 '왕의 남자'는 동성애를 주제로한 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감독은 인터뷰에서 "(왕의 남자)는 서양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동성애가 아니다"라며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동성애는 취향이 아닌 운명이지만 '왕의 남자'는 실제"라고 말했다.

또한 '왕의 남자' 제작진에게 큰 영향을 미친 안성남 사당놀이에서 전수자 김기복씨를 통해 광대들의 삶을 다루기도 했다. 김 씨는 "예전부터 광대는 가난한 삶을 살았기에 아래를 일기 어렵겠다"며 "광대에게에는 '비리'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여성성을 갖춘 광대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독신 근로자 1인稅부담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독신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일 행가리 온라인 금융저널인 '포트폴리오'가 분석한 최근 OECD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및 제조업에 종사하며 평균 임금을 받는 독신 근로자들의 '조세격차'가 지난해 한국은 17.3%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조세격차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격차가 클수록 근로자들의 세부담도 커진다. 조세격차가 낮은 국가는 한국에 이어 멕시코(18.2%), 뉴질랜드(20.5%) 등의 순이었고 벨기에(55.4%), 독일(51.8%), 헝가리(50.5%)가 1~3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은 37.3%로 한국보다 20% 포인트나 높았다. 이에 비해 2명의 자녀를 두고 부부 중 한 명만이 일하는 경우 조세격차는 터키(42.7%), 스웨덴(42.4%), 폴란드(42.1%)가 높게 나타난 반면 미국(11.9%), 아이슬란드(11%) 등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코엑스에서 열린 15차 ANOC총회 개회선언

총연합회) 개회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연희 성추행' 본격 수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동아일보 여기가 검찰에 최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본격 가동 1년을 맞은 엘라베마 공장 및 협력업체 등을 방문, '메이드 인 USA' 현대차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 회장의 출국과 관련, 검찰총과 조율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

주 험 협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동아일보 직원 고발인 대표 김모, 전모 기자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나 강제 추행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해당여기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할 때 까지 수사를 미뤄왔다.

검찰은 앞으로 성추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동아일보와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뒤 최의원을 피고로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

공무원 대출(직장인)

- 공무원 6%
- 교직원(공립, 사립) 500만~7000만원 1년~폐지시까지
- 군무원 대상 대출 및 단기연체자 가능 *부부증 무담보
- 직장인 500만~3000만원 *원천징수 가능자, 금리 쓰기 부부증, 무담보

고려 080-500-6620 (무료전화)
011-9535-8236 (상담실장)

뜻만령

- 김종우



뭣이藥될지 모르니 쏟아붓고 보자

정동구 회장 전격 출국

검찰 "사전협의 없었다"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동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일 오후 미국으로 전격 출국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6시5분께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으로 출국했으며, 현대차그룹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정 회장을 수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 검사도 정 회장의 출국사실을 물어 확인 중에 있다. 검찰과 현대차 사이에 사전 협의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도 이날 정

분양대행 전문회사

(주) 청담 D & C

Tel. 062-382-4984 / FAX. 062-384-0049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앞 대표부

- 분양대행문서
 - 아파트/상가/건물주택
 - 기타 부동산 판매
 - 부동산 개발, 관리
 - 부동산 투자클럽
 - 광주, 전남공인중개사 협력체 구성
- 주주공인증개사 공동체
 - 군포 봉우리동개사 이정노
 - 광명 죽 풍미동개사 김진수
 - 하남개사 광진동개사 김종현
 - 청 담 풍미동개사 강동언

(주) 청담 D & C

어음카페·담보

어음 1,000만원 이하 환영

[月 2~5.5%]

(등록업체)

010-3009-6633

법무법인 설립인사

저희들은 이번에 **한국 법무법인 토범**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민·형사, 조세, 행정 등 일반 송무, 공정거래, 국제거래, M&A 등 기업 법무, 저작재산권, 등기, 개인회생·소비자 파산, 공중 등 모든 법률적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 표 변호사 이근우 용 유통
구성원 변호사 양동학 손창환
심형섭 정재중
소 속 변호사 이상현 김상우
공인회계사 허재호

LAWCOM 전국 법무법인 토범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08-33 로컬빌딩
홈페이지 www.lawcom.co.kr
대표번호 062-236-0001 공중실 062-234-6100

2006년도 센터 연구사업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지점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2006년 추진할 연구개발사업별 연구책임자(기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연구사업별 (7개 과제)

1. 광장단지 역학설계조사 및 평가
2. 어수선단지 환경보전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보전기기 개발
3. 광장 내수수자원 재활용
4. 어수선단지 축산폐설 및 치수
5. 소요예산: 약 275,000천원
6. 사업기간: 2006. 5 ~ 2007. 2. (10개월)
7. 신청기간: 2006. 4. 3 ~ 2006. 4. 17. (15일간)
8. 신청자격 및 주제
9. 지원사업 및 지원내용
10. 신청기준 및 지원기준
11. 신청기한 및 지원기한
12. 신청방법
13.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14.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15.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16.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17.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18.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19.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0.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1.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2.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3.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4.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5.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6.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7.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8.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29.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0.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1.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2.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3.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4.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5.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6.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7.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8.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39.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0.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1.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2.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3.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4.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5.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6.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7.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8.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49.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0.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1.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2.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3.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4.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5.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6.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7.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8.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59.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0.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1.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2.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3.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4.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5.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6.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7.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8.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69.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70.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71.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72.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73.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74.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
75. 신청기록 및 지원기록</